



천 경 훈

『학력사항』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미국 Duke Law School(LL.M.)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경력사항』

-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학)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군법무관
-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35회(1993년)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Prologue

2차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금요일 저녁, 나는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이번 2차 시험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을 위한 준비로서 시험 삼아 쳐 본 데 불과했기 때문에 감히 합격할 욕심은 낼 수 없었지만, 그래도 발표날이 되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주 없진 않았다.

그 때 전화벨이 울렸다. “야 임마! 너 합격이야. 어떡할래?” 신림동에 미리 나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친구가 전화를 해 준 것이었다. 기쁘다기 보다는 황당하고 허탈했다. 진짜 이 일을 어찌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가 던진 “어떡할래?”란 말이 무슨 화두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실 내 실력이 사시 동차합격, 게다가 최연소라는 행운을 거머쥐기엔 아직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보람보다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다.

그 뒤로 친구들, 선후배들, 그 외에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술한 축하 인사를 받을 때에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나의 마음은 당당하기 보다는 좀 멧쩍었다.

당구칠 때 ‘뿌로꼬’로 들어갔을 때 하는 인사처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합격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쭙잖은 글을 시작하려는 것은, 합격기 써보라는 부탁을 계속 거절하자니 그것 또한 건방져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적어도 내가 '최소비용으로 최대 만족'이라는 경제원칙상으로는 성공한 셈이니 무언가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三人行에 必有我師焉'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자신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한마디쯤은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시작해보려 하지만, 나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우수한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될 생각을 하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I. 법과의 첫 대면, 그리고...

91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곳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을 때, 나는 대학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품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친구를 사귀자'는 것을 내 대학생활의 두 지침으로 삼자고 생각했다.

1학년 때에는 대개 남들 사는 대로, 학회 활동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방학에는 농활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살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느슨하게나마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 읽고 싶은 책들, 읽어야 할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특별히 대단한 양의 독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갑갑한 고민 속에 살았던 때이긴 하지만, 또 속된 말로 잘 나간 못했지만, 1학년 시절에 대한 후회는 없다.

내가 처음 실정제도로써의 법과 대면하게

된 것은 1학년 2학기 양창수선생님의 法律文章論 시간을 통해서였다. 양 교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전형적이고 단순한 민사상의 분쟁을 제시하고, 아직 법공부를 안해 말랑말랑한 머리로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게 하셨다. 이를테면 法的 思考의 단초를 스스로 최소한이나마 터득하길 기대하신 것 같다. 그러나 그 때의 나에게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왈가왈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아니, 빚을 받으러 가야 하는지, 갚으러 와야 하는지가 왜 중요하단 말인지. 설령 당사자 사이에선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내가 저만 것 공부하자고 법대에 왔는지.

하필 그 시간이 내가 좋아하는 '사회와 사상'이란 철학계열 교양과목 바로 다음 시간이어서, 나는 10분의 시간을 두고 사고의 추상 수준을 한참 레벨 다운 시켜야 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유쾌한 일은 더욱 아니었다. 그 때 쓴 일기를 보니까 수업시간에 법 이야기만 나오면 '견딜 수 없는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써 놓았다. 그리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흥분하며 희열을 느끼는 몇몇 친구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고, 심지어 속물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어쨌든, 아직 전공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법학이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매일 다른 과 커리큘럼을 뒤적이며 부전공할 공리를 했다.

그러다가 겨울 언저리 들어 생각을 좀 달리 하게 됐다.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다툼과 문제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하던 술한 놀이도 자세한 규칙과 벌칙이 다툼 없이 정해져 있어야 진행되는 법인

데, 하물며 복잡한 세상사야 오죽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높은 추상 수준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명하고 나아갈 바를 밝히는 자가 필요하다면, 거기서 생길지도 모르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자 역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그래서 나는 법이라는 것 자체로부터는 고차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眞理나, 개념적 유희에서 얻는 즐거움 따위를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法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꾀하는 현실적·기술적인 도구일 뿐이고, 따라서 법만 잘 알아서는 부족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한 폭넓은 공부와 체험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람된 말이지만 그 때 나는 '시야 넓은 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法에 대해 누구도 무시 못 할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이론 이외의 여러 社會經濟的 要因이라든지 일반인들의 意識이나 실제 慣行 같은 것 까지도 함께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률가. 법에 충실하지만, 법이라는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양과 열린 마음을 가진 법률가.

이렇게 생각하자 司法試驗은 넘으면 좋을 벽으로 다가왔다. 법률가로서의 다양한 직종 중에 나는 공부를 계속하는 길을 걷고 싶었지만, 시험이 얼른 된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고 뭐 청춘을 걸고 시험 준비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니고, 전공 공부에 충실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한 데 지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끌 생각은 없었고, 고시 보는 것 말고도 진로야 많으니 잘 안되면 다른 길을 모색해 보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다.

II. 2학년 때의 생활

이리하여 1학년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법서를 접하게 되었지만, 다른 책 읽는 틈틈이 민총과 형총을 한차례씩 읽은 것이 전부였다. 2학년 1학기가 시작되자 전공과목이 많았다. 1학기 동안은 그리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고, 민총과 형총만 한두 번 되풀이해서 보았는데, 아직 법공부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일은 전혀 없었지만, 처음에 느꼈던 건딜 수 없는 이질감은 많이 극복된 것 같았다. 그 외에 미시경제론을 수업들으며 매우 재미있게 공부한 기억이 난다.

민총과 형총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各論 없는 總論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 法書를 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민법의 各卷, 형법의 各卷은 결코 卷 단위로 따로이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채권각론을 모르고 민법총칙을 알 수 없고, 민법총칙을 모르고 채권총칙을 알 수 없다. 형법각론과 형법총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총론만 붙잡고 4회독, 5회독 할 것이 아니라 얼른 당해 법체계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권을 보고 민총으로 돌아오고 채총을 보고 민총으로 돌아오고 하는 식으로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여름방학 때부터였다. 이전처럼 중앙도서관 3열람실 창가 부근 평상에 자리를 잡고, 아르바이트 있는 날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대개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 반 무렵까지 공부했는데, 실제 공부한 시간을 따져 보면 9시간가량 되는 듯 했다. 9주일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 공부해 나갔는데, 민총·형총과 헌법 일부 외엔

처음 보는 내용이었는데도 이 기간에 민법 4권, 형법 2권, 헌법, 3인공저 중 거시부분 등을 볼 수 있었다 더운 날씨를 꼭 참고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열람실에서 공부한 과친구들 덕분이기도 했다. 그룹스터디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밥먹고 이야기하고 가끔 술 한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 이 친구들과 설악산과 동해로 여행을 갔는데, 비 쫄딱 맞으며 기타를 메고 대청봉을 넘던 기억이 아직도 흐뭇하다.

2학기에도 기본적으로는 강의 듣고 그에 맞춰 공부해 나갔다. 양창수 선생님의 물권법, 남궁호경 선생님의 형법각론, 미국 헌법에 관한 원서를 읽은 안경환 선생님의 영미법강독 등은 내게 처음으로 법에서 '재미'를 느끼게 해준 과목들이었다. 그 외에 친족, 상속, 거시, 헌법 등을 들었다. 2학기 중에도 비교적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갔고, 3법은 한차례 이상씩 더 볼 수 있었다. 1차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문제집을 들춰 봤으나 도무지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없어서 겁이 덜컥 났고, 일단 실력을 좀 쌓자고 마음먹었다.

공부하는 틈틈이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법학도서관에서 判例를 찾아보기도 했다. 강의 중에 소개된 판례나 교과서에 인용된 것 중 흥미 있어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교과서에는 판례 번호만 나오고 출처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에는 조문별로 편집된 要旨集을 찾아보면 그 출처를 알 수 있다. 일일이 복사해 봤자 보게 되지 않으므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읽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금방 잊게 되지만, 실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접해 보는 것은 법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판례도 몇 번 찾아 읽다 보면 찾는 방법이나 해독하는 방법에 어느 정

도 감이 생기므로, 지나치게 시간 잡아먹지 않는 한도에서 판례에 익숙해지는 것은 요즘의 케이스 출제 경향과 관련하여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무튼 2학기가 끝날 무렵이 되니 민법과 형법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았다. 대략적인 회독수는 대개 2~4번씩 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OO법 몇회독 했냐는 식의 질문에 잘 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내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여러 번 읽기 보다는, 한두 번 통독 후에는 강의진도나 시험범위, 의문나는 부분 등을 부분 부분 공부해나가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5~6번 읽은 부분도 있고 1~2번 읽은 부분도 생기는데,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이러한 입체적인 독서법이 더 알맞았던 것 같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후에는, 공부하다 모르는 게 나오면 교과서 해당 부분을 찾아 그 앞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책을 뒤적거리면서 종합무진으로 읽는 편이었다. 이 방법이 꼭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일견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법리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하니, 가만히 눈만 따라가며 읽는 것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다.

Ⅲ. 1차시험의 준비

2학년 겨울 방학이 되자 본격적으로 1차 준비를 시작했다. 1차 준비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는 그 때까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경우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석달이 조금 못 되지만, 3법과 영어, 경제학이 나름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으로도 가능했던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차 준비에 앞서 대강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공부해 나갔다. 하루의 2/3는 법과목을, 1/3은 비법과목을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10주 동안 한차례씩 본 뒤 2주 남짓 정리할 시간을 남겼다. 그런데 국사와 헌법을 예상보다 빨리 끝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끝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계획한 분량을 간신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날그날의 공부는 계획과 상관없이 맘에 내키는 부분을 한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 요컨대, 계획은 필요하지만, 너무 그것에 안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비워 놓아 혹시 공부할 것이 밀리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1차 준비할 때 가장 답답했던 것은, 한번 틀려서 표시해둔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또 틀린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맞았던 문제도 나중에 다시 보면 한없이 헛갈리곤 하였다. 그러다보니 문제집 푸는 것이 결국 아는 것 확인하는 데 불과하고, 모르는 것은 계속 모르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 참 답답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틀린 것, 헛갈리는 것만이라도 표시해 두었다가 여러 번 되풀이 해 보는 정성이 필요한 것 같다.

1차 공부는 결국 책 읽고 문제집 푸는 과정인데, 내 생각으로는 문제집을 여러 권 볼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과목별로 두툼하고 많이 보는 것을 하나 골라 기본서와 대조해 가면서 풀고, 틀린 문제를 여러 번 잘 확인 해 놓는 것이, 여러 권 사서 뒤적거리다가 풀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물론 법과목의 경우에는 책에 따라 같은 문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하여 다른 답을 내놓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시간이 허락한다면야 두 권 정도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1차 각 과목별로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잠깐 기억해보겠다.

民法은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했는데 끝까지 불안한 과목이었다. 하루 2/3씩 5주를 배정했으니 전체시간의 1/3씩이나 투자한 셈인데도, 마지막까지 문제가 잘 읽히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할 때에도 집중적으로 했더니 웬걸, 점수 발표 때 보니 하나도 틀리지 않아서 내가 제일 놀랐다. 역시 열심히 한 과목이 잘 나오는 법이라는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1차 민법은 무엇보다도 조문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특히 채각과 친상 부분은 조문만 잘 익히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조문의 내용을 잘 알아 두는 것이 1차 뿐 아니라 2차까지도 유용한 것 같다.

3법 과목은 기본서를 보아 나가면서 사나흘에 한번씩 해당 부분의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했다. 문제를 풀 때에도 반드시 기본서를 옆에 놓고 문제집과 대조해 가면서 보았고, 혹은 문제집에 잘 정리된 내용이나 새로운 판례가 있으면 기본서에 옮겨 적고 했다. 判例의 태도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므로, 판례를 직접 읽진 못하더라도 그 입장만이라도 잘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憲法裁判所의 최근 판례는 고시 잡지 등을 통해 잘 알아 두어야 한다.

經濟學은 2학년 1, 2학기에 미시·거시 강의 들으면서 비교적 열심히 공부해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객관식 문제를 풀러니 좀처럼 맞출 수가 없어서 문제집 붙들고 한참 고생

했다. 경제학도 법과목 이상으로 기초 실력이 필요한 것 같으니, 1차를 목전에 둔 몇 주 동안 문제집에 요약된 것으로 배우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되도록 강의를 듣기를 권한다.

歷史 과목은 내가 원래 좋아 했던 과목이고, 대학 들어 와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2학년 때에도 '시민혁명과 근대사회' '한국의 독립운동' 같은 과목을 들으며 책을 여럿 읽었는데, 司試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개개의 史實들을 무언가 방향성 있게 파악하는 안목을 최소한이나마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지엽말단적인 것들을 시시콜콜히 외우려면 한심스러웠지만, 이왕 하는 공부 재미있게 하자는 기분으로, 모르는 것은 백과사전도 찾아보며 적극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다. 제일 난감한 것은 중국근대사였는데, 가끔 공부가 안 될 때 기본도서실에서 '이야기 중국사' 따위의 쉬운 책을 뽑아다 도서관 내의 음영자료실에서 드뷔시나 거쉬인을 들으며 읽기도 했다. 개설서는 법공부하는 틈틈이 지겨울 때마다 읽었고, 문제집은 문화사 한 권, 국사 한 권을 철저히 풀었다.

선택은 국제사법과 영어를 했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법은 많이 보는 책(김명기) 한 권이면 충분할 것 같다. 비슷비슷한 1,400문제를 푸는 것이 고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제사법도 그 나름의 논리구조를 갖춘 법이니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속설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엄연히 하나의 법인 이상 최소 2회독 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본문 내용 및 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집에 따라 답이 다른 경우가 많으

니 주의해야 한다. 영어는 평소에 원서도 조금 읽었고, Vocabulary나 토플책도 본 적이 있고, 또 1차 시험 직전까지 꽤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2년간 영어 과외를 해 온 덕분에, 그리 큰 두려움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었다. 기출 문제집을 틈틈이 풀어 봤는데 오자와 오답이 매우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IV. 2차시험의 준비(라기 보다는 3학년 1학기의 생활)

1차 시험까지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합격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로 몇 달 만에 내게 주어진 同次合格이란 행운은 정말 행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3법 이외의 과목들은 1차 시험 후에야 비로소 책을 사고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1차 시험 치룬 뒤 조금 놓고 다른 책 보기도 했지만, 3학년 1학기에만 전공필수가 다섯 개나 되었기 때문에(민소, 형소, 행정, 회사, 채총) 마냥 놀 수는 없었다. 특히 새로 배우는 네 과목은 강의가 매우 충실히 진행되었고 진도도 빨랐기 때문에 이 과목들 진도 쫓아가며 예습하고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학기 공부거리가 되었다. 사실 내 2차 준비라고 할 만한 것은 이것이 전부다.

4월계 1차 발표와 점수 발표가 있었는데, 합격한 것은 기뻐지만 겨우내 같은 열람실을 지켰던 주위의 친구들이 아깝게들 불합격해서 몹시 섭섭했다. 점수는 예상에 비해 잘 나와 솔직히 기분은 좋았지만 자만하지 않을까 염려되었다.

1학기 생활도 평범했다. 공강과 저녁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끔씩 친구 녀석들과 술마시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고 생일을 챙겨 주기도 했다.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해 나간

결과 5월 중순 무렵까지는 새로 배운 과목들도 2번 이상씩은 읽을 수 있었다. 교재는 대개 수업 교재를 보았다.

6월 10일경, 여름 방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번 2차에서 합격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래도 급한 대로 열흘 정도 만에 아직 보지 않았던 어음수표법과 보험해상, 행정법 2 등을 읽었고, 시험 1주일쯤 전에는 1차 이후 덮어 놓았던 3법을 비로소 훑어보기 시작했다. 간신히 한번 훑은 상태에서 6월 29일부터 成大에서 치러진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장이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또 나로서는 추억이 깃든 낯설지 않은 동네라 좋았다.

V. 2차 시험

시험장에 들어서니 정말 살벌했다. 특히 노장 수험생 분들이 중얼중얼 열심히 암기한 내용을 되새기는 것을 보니, 나같이 젊은 게 여기 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듯했다. 아무튼 첫날 시험은 기분이 좋았다. 倫理는 사실 '사상과 윤리'를 절반 남짓 읽은 것 외에는 공부한 것이 없었지만 내가 평소 생각하던 바와 여기저기서 읽고 주워들은 이야기들을 적당히 엮으니 그런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해 낼 수 있었다. 憲法도 그럭저럭 쓸 수는 있었다. 둘째 날, 고비라고 생각했던 行政法과 商法을 의외로 선방했다. '이러다 혹시 붙는 것 아니야?' 하는 욕심이 이날 비로소 들기 시작했다. 특히 어음수표법 문제를 웬만큼 쓴 것 같아 신기했다. 셋째, 넷째 날도 잘은 못 쳤지만 科落은 면한 것 같아서 솔직히 은근한 기대를 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약 돈을 건다면 불합격에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입대를 앞둔 친구와 남도 일대를 여행하고 돌아와서는 여름

방학 중에도 공부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9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10월엔 최연소라는 소식도 듣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나는 2차 시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성적도 나쁘다(거의 200 등). 그래도 내가 형편없는 실력에도 불구하고 일찍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 되어 많은 지식 없이도 기본적인 내용만을 가지고도 순발력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래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나는 초안을 2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충실히 썼다. 사례형이니 논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지만, 아는 게 없으니 일필휘지로 써내려 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험기간 중에는 3~4시간만 잤는데, 마지막 날은 난생 처음 공부하다 동트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는 정말로 하루에 법서를 한두 권씩 볼 수 있었는데(줄친 부분만 보아 넘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 때를 위해서라도 책에 줄을 잘 쳐 놓는다든지 하여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례문제의 경우 일반론을 너무 많이 쓰기도 주어진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론과 사례해결 결과의 단순한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주어진 사실관계가 어떤 법규 내지 법리에 包攝되는 과정을 최소한이라도 보여 주려고 했다. 법적 문제의 해결은 事實關係의 확정, 解釋을 통한 法規의 확정, 전자의 후자에의 包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모범답안이나 케이스 문제집이 법규해석에 관한 일반론만 사례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잔뜩 서술한 후, 마지막에 '사례의 해결'이라고 하고는 결론만 적어 놓고 있다. 사례문제에서 사실 확정의 문제까지야 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많

은 경우에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포섭과정은 서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VI. 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대강 공부에 관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다. 그래도 몇가지 미진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다.

학교 강의는 꼭 들으라고 권하고 싶다. 내 경우 특히 2차과목은 강의듣고 진도쫓고 정기고사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의 전부가 된 셈인데, 말하자면 강의 자체도 도움이 되지만 학교 강의를 자신의 공부 계획의 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한번쯤 미리 읽어 보고 의문을 품은 상태로 수업에 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시 과목뿐 아니라 비고시 과목인 영미법, 로마법, 경제법, 독법 등도 司試에 방해가 되었다기 보다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 법대생이라면 전공공부와 사시 준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무 금욕적인 생활을 하거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채근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고, 가끔씩 갖는 모임이나 술자리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다고 시간에 대해 마냥 관대했던 것은 아니어서, 대략적인 계획은 되도록 지키려고 했고, 매일 집에 갈 무렵엔 그날 순 공부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해 보는 버릇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몇몇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책을 읽을 때에는 책을 단순한 객체로 파악하여 꾸역꾸역 외우려고 하지 말고, 책과 대화하겠다는 심정으로, 또 모르는 것을 저자에게 물어보겠다는 심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억울하게 구속되어 형사소송법전을 뒤지는 사람의 눈에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 보인다고 한다. 말하자면 구체적인 문제와 얽히면 별것 아닌 것 같은 법리나 법조문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말인데, 공부할 때에도 이런 원리를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책을 뒤지면 책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케이스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도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들을 머릿속에 의문으로 간직하고 책을 접하면 훨씬 능동적인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책을 읽을 때에는 자기가 지금 무얼 읽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컴퓨터에서 Current Directory를 알고 있어야 하듯이, 자신이 지금 읽는 내용이 책 전체에서 어디쯤에 있는 것이고, 어떤 맥락에서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언제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암전히 읽는 독서법보다는, 가끔씩 눈을 떼어(또는 책을 덮고) 머릿속으로 읽은 내용을 되새기고 정리하는 독서법이 필요할 것 같다. 요컨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이다.

고시를 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자신의 성격과 적성을 잘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것을 부탁드린다. 사람에 따라서는 틀에 박힌

고시 공부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어울리는 개성을 가진 경우도 많을 것이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는 고시가 아니라도 능력을 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고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경우에도 적어도 1, 2학년 때에는 법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밝은 면뿐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국민윤리 답안 작성하는 데에도 그러한 소양이 요구되는 것 같다).

VII. 맺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일찍 찾아온 합격. 그리고 불쑥 주어진 1년의 유예. 이러한 기쁨이 있기까지는 감사드려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내일에는 그리 간섭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하도록 믿고 맡겨 주신 부모님 덕분, 어디 하나 손 내밀 데 없는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덜 겪고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아버지가 같은 캠퍼스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아버지 차로 한차례 더 달콤한 아침 잠을 즐기며 학교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다(면허도 있으면서 모셔다 드리지는 못할망정 매일 옆자리에서 잠만 잤으니 정말 죄송스럽다).

그리고 같은 공부해 온,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우리들만의 고충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 쟁친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침 튀는 줄도 모르고 법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이따금 서로의 고민을 술기운에 털어 놓으면서, 부탁도 하지 않았

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판례나 논문 등이 있으면 내 뭇까지 복사해서 건네주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삭막한 법대의 고시문화 속에서도 그런 대로 정을 붙이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친구들이 어서 시험에 합격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한다.

그 밖에도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많은 교수님들, 청소년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신뢰감으로 나를 격려해 주고, 시험 직전 옛 대신 故조영래 변호사의 변론집을 선물하며 깨어 있는 법률가가 되라고 말해주기도 했던 몇몇 동문 녀석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시 합격자로서 간간히 도움을 구했던 동문선배 옥렬이 형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사시 합격은 내가 애초에 꿈꾸던 열린 마음을 갖고 넓은 시야를 가진 법률가가 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만 잘 안다고 좋은 법률가가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니, 이제부터 보다 폭넓은 공부와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을 충실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법률가라 한다면 그 중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공부를 계속하는 길을 걷고 싶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도 무감각하지 않고 싶은데, 이런 모든 것을 갖추려면 끝없는 노력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아무튼, 합격 후 많은 어른들과 선배들이 충고해주신 대로 절대 자만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나의 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

나를 사랑해 준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며, 내가 지금의 성취에 자만하여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